

하루를 시작하며



허경자 제주EV협동조합 이사장

조찬포럼에 참여했다.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제주스마트e밸리포럼이다. 서귀포에 살면서 한라산을 넘어 아 침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대학, 기관 등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을 알아간다는 것, 지역의 현안을 고민한다는 것, 몸과 마음이 바쁘지만 밀려드는 소소한 만족감과 스스로 느끼는 대견함, 나이가 들며 연약해지는 공동체 의식과 쇠락해가는 자존감을 포럼을

제주의 유니콘은 어디에

통해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e밸리포럼은 지역현안과 국내외 동향을 공유한다. 제주형 실리콘밸리 구축을 비전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4차산업과 인공지능, 전기차와 미래교통시스템 등 전문가들과 탐구하고 고민해온 내용과 정보는 광대하고 심오하다. 금차에는 오랜 기간 정보통신에 몸담았던 오경수 사장이 '스타트업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발제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진 젊은 패널리스트들의 직설적이고 현실적 의견개진이 열기를 더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이다. 소규모이지만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사업영역에서 유니콘기업으로 성공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초기엔 용어자체가 낯설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

대적 트렌드로 부각되며 세계 젊은 이들의 꿈과 로망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주의 상황은 어떠한가. 미래를 꿈꾸며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강한 의지로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가는 기업이 있던가. 이러한 청년과 기업들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은 마련되고 있을까. 제주의 기업환경은 녹록지 않다. 그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는 단순히 비행기로 손쉽게 오가는 섬관광지가 아니다. 예전처럼 감귤 원산지로서 혹은 은근히 고장오만 여기면 오산이다. 제주는 이미 플랫폼 대표기업 다음이 이전한 지 오래고 세계 최초로 국제전자자동차엑스포도 여덟 차례나 열렸다. 양방향으로 전기에너지 수급이 이뤄지는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 배터리에서 전기를 빼내어 활용하는 V2G기술의 실증은 제주가 국내 최초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는 농업업과 관광 주력의 산업한계에서 탈피하여 융합수와 천연화장품 등 바이오영역까지도 유연하게 대응하며 산업생태계의 외연을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연내에 제주는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머지않아 1조의 기업가치를 보유한 유니콘기업의 탄생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청년의 취업은 물론 육지부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일자리와 비전을 찾아 몰려오는 제주형 실리콘밸리의 구축, 그 현실화를 기대한다. 지역의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전환과 조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촘촘하게 설계된 제주도의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사설

문제투성이 ICC제주, 대수술 이뤄져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는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이다. 엄연한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공공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이 끊이지 않아서다.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솔한 불법행위가 자행됐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오죽하면 의원들 입에서 "(ICC제주 운영이)개판"이란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ICC제주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계약 비리를 비롯해 채용 비리, 국가보조사업 자료 허위 작성, 인사권 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갑질,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제기됐다. 또 출퇴근 시간 조작 지시,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

부 제보자에 의해 경력직 채용 비리 의혹과 국고보조금 유용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 문제는 결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함께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가관이다. ICC제주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이렇고도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가. 못된 짓은 다하고 있다. 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조개판'이란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ICC제주의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계약 비리를 비롯해 채용 비리, 국가보조사업 자료 허위 작성, 인사권 남용 및 직장 내 괴롭힘·갑질,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제기됐다. 또 출퇴근 시간 조작 지시,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내

열린마당

비대면 디지털 건강관리 집중



오미옥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19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바꿔 놓았고 우리의 일상을 여러모로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건강관리사업은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전세계가 주목한 큰 화두 중의 하나는 '메타버스'를 꼽을 수 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문화의 확산은 어느새 우리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보건소에서도 디지털 뉴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ICT를 활

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과 건강수준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에 참여하면 보건소에서는 건강미션과 건강정보 등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시대에 맞게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기를 통해 6개월간 어디서나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ICT를 활용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도내 제주시 제주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3곳에 이뤄지고 있고,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워크온) 활용 비대면 건강 사업은 6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100세 시대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으면 한다.

뉴스-in

KT "인터넷 장애 보상방안 마련"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 사과

○...25일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KT의 유무선 인터넷망 장애로 개인 고객은 물론 식당·편의점 등 자영업자와 학교, 기업 등 전국의 가입자들이 대혼란을 겪은 것과 관련, KT가 26일 사과문을 발표하며 조속한 보상방안 마련을 약속. KT는 이 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인터넷 장애 초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외부에서 유입된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했으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확인돼 정부의 원인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언급. 또 "고객들에게 장애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일반적 '3·4급' 신설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시조직원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정규 기구화 등에 따른 정원 증원과 일반직 '3·4급' 신설을 추진하면서 주목. 26일 열린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통과.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현행 3급 1명, 4급 12명은 유지되는 가운데 3·4급 정원 1명이 신설되고, 5급 이하 정원이 1295명으로 현행보다 5명 증가, 전문경력관은 14명으로 3명 감소하는 등 정원 총수가 1470명에서 1473명으로 3명 증원되는데, 오는 11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오은지기자

아동학대 예방·대응, 더 '고강도'로 나서라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가 여전히 이어져 예방과 피해 구제에 나선 민·관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는 어린 이집 교사에 의한 사례에다 이혼이나 경제적 빈곤 등에 의한 가정내 학대 증가도 계속되는 현실이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나 어른들의 가혹행위 모두를 망라한 반인권적 범죄인데다 발생사례도 이어져 보다 강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 제주보호관찰소 집계결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는 2019년 31건, 2020년 67건에 이어 올들어서도 9월까지 26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판정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7년 344건, 2018년 35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에 달할 만큼 심각하다. 민·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내 아

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보다 강하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그간 민·관의 예방·대응책은 일정부분 평가받을 수 있다. 제주보호관찰소가 법 심판을 받은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월 3회 지도·감독, 분기별 피해아동 지원활동, 아동전문상담사 23명 위촉을 통해 '가정재건'에 의한 재범 예방에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작년 9월 교육 경찰 행정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학대 예방을 위한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구성,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사례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행정 대책과 현장 '실천' 사이의 괴리, 일부 대책들의 무용론을 제기 않을 수 없다. 이제 민·관의 아동학대 예방·대응책은 "부족보다 과잉이 낫다"할 만큼 고강도여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한양조공 문부(향년 90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10월 27일

- 부인 박희자, 아들 조성익, 며느리 한현주, 범수 송채원, 딸 조혜란, 사위 김영조, 혜영 이대원, 혜경 박성준, 혜진 찰스프로쉬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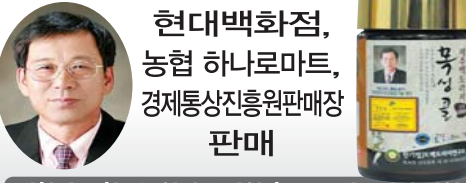
성명: 망 임대섭 (1979. 10. 1. 생) 최후주소: 제주시 삼천동3길 8, 101호 (아라일동, 제일조은빌 1차)

상기자는 2021년 8월 3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47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가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기차동길5-1, 102호(아라일동, 라인빌) 2021년 10월 27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임태희, 임태연 (법정대리인 천현자 모 강문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 신제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모듬 분양

-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한라봉, 탐나는중, 사자영(신동충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베니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모듬(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귀주유소에서 모솔도 방향 300M 위치)

중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탕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